

사상의학 - 제 3부

사상인의 성격과 행동

사상인을 체질에 따라 구분할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해서 그 성질을 알기란 아주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 경솔하고 덩벙댄다고 생각한다. 경솔하고 덩벙댄다고 대답했다고 소양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한다.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대답했다고 소음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손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마음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속마음을 잘 드러낸다고 대답했다고 소양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착해서 남들을 잘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소양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체질 감별에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아서 성격을 파악하는 것에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그냥 눈으로 보아서 그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각 사상의 성질을 잘 알고 부단한 연습을 하면 묻지 않아도 개개인의 형체와 행동으로 그 성질을 정확히 알 수 있다.

1. 태양인

태양인은 봄을 닮은 성격이다. 충분히 저장된 에너지원이 있고, 그 에너지가 힘차게 분출하고 있어 원기 왕성하다. 그러나 항상 자신에 차 있고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니 한가지 생각밖에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이 시원시원하다. 태양인은 히틀러나 나폴레옹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명석한 두뇌에서 나오는 자신에 찬 결정을 따른다.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는 소음인이나 기운 떨어지면 처음 말을 반복하는 소양인 지도자는 잘 따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갈 줄만 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일방적인 성격이라 명석한 두뇌에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성공을 하지만 때로 아주 큰 실패를 한다. 그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명석한 두뇌와 넘치는 에너지로 잘 풀어가지만 진짜로 큰일에 부딪혔을 때는 화약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터지는 듯한 대노를 하여 몸을 망가뜨린다.

봄에 에너지가 솟아오르기만 하고 아래로 저장될 줄은 모르듯이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고 물러설 줄 모른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맹스럽고 적극적이고 남성다운 후회할 줄 모르고 독선적이다. 빨리 일을 끝내려는 급박지심이 너무 강하여 항상 그 마음에 밀려다닌다. 태음인처럼 항상 만만디 정신을 가지고, 가다 못 가면 쉬어 가고, 모든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기분전환을 위해서 오락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가 태양인이라는 확신이 가고 급박지심이 있으면 주위의 태음인을 잘 관찰해 자기 성격과 다른 점을 항상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태음인의 장점을 닮으면 병이 생기지 않고 큰 실수도

저지르지 않게 된다. 그러면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큰 재물을 모아 여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다.

2. 소양인

소양인은 여름에 에너지가 왕성한 것을 닮은 성격이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이 잘 되니 꼭 술을 먹은 것과 같다. 명랑하게 떠들며 신이 난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좋아한다.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는 극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한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것을 아주 큰 수치라고 여긴다. 남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충고하고 자기의 잘못도 곧 털어놓는다. 소양인은 한낮처럼 밝기 때문에 감추는 것을 싫어한다. 누구에게 기술을 배우면 조금 배우고 다 알았다고 생각한다. 항상 새로운 일을 찾고 그 일을 시작했으면 금방 그만둔다. 어떤 일이 막히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벌컥벌컥 잘 낸다. 소양인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번에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불의 성질을 닮았다. 성질이 급해 어떤 과정을 차근차근 잘게 끊어 보지 못한다.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보는 것이다. 빠르게 대충 배우니 금방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세세한 부분은 모른다. 그 일을 시작해 보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막힌다. 성질이 급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면 그것을 뚫으려고 화를 낸다. 그래서 소양인은 벌컥벌컥 화를 낸다.

일을 할 때 항상 새로워야 꾸준히 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자기 생각에 모두 다 알아버렸으니 재미가 없다. 자세히 알지 못하니 일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새로운 일이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소양인은 일을 별려만 놓고 끝을 맺지 못한다. 소양인의 이런 성격을 용두사미 성격이라고 한다.

소양인은 남의 일은 잘 도와주나 자기 집의 일은 잘 돌보지 않는다. 밖에서는 소양인을 보고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나, 집에서 부인과 아이들에게는 집안일 안 챙기고 바깥일만 돌보는 실속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여름의 만물은 에너지가 바깥에만 왕성하고 안에는 부실하다. 그래서 소양인은 밖으로 남의 일만 잘 해주고 안의 자기 일은 소홀히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고급 옷과 고급 차를 타고 있지만 모아놓은 재산이나 돈이 없어 아파트 임대비를 밀린다. 이것도 소양인의 외실내허한 예이다. 이런 성질은 겉과 상부가 양이고 속과 하부가 음이라 속이 빈 소양 괘(☰☷) 모양으로 알 수 있다.

소양인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다. 소양은 양이 극에 달해 음이 생긴다. 에너지 소모가 극에 달해 물질화 작용이 일어나는 성질이 있다. 에너지가 수렴되면서 일어나는 허전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다. 이 두려운 마음이 에너지를 수렴시켜 물질화 작용이 시작한다. 그래서 소양인은 하던 일을 포기하기를 잘한다. 남의 일을 열심히 잘 해주다가도 중도에 그만두어 자기는 자기대로 도와주려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나쁜 소리를 듣는다.

소양인이나 태양인이나 다같이 성질이 급하나 태양인은 급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뚫는 힘이 있다. 봄에 두꺼운 껍질을 뚫고 싹을 내는 돌파력이 있기

때문이다. 소양인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중도에서 그만둔다.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양이 극해서 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급한 마음에서 오는 추진력에 두려운 마음에서 오는 제동력이 가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인이나 소양인이나 화를 잘 내나 그 빈도가 다르다. 태양인은 강한 돌파력으로 사소한 일은 쉽게 돌파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으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도 뚫을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매우 크게 화를 낸다. 그러나 소양인은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하는 돌파력이 약해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낸다. 그리고 그 일을 던져 버린다.

3. 태음인

태음인의 성질은 가을을 닮았다. 가을은 에너지를 수렴하고 물질화하여 결실을 맺는다. 태음인은 성격이 점잖고 신중하다. 경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는다. 결실에 해당하는 결과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결과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많은 일은 하지 않는다. 내 일신의 편함과 가족의 편함을 확보하기 위한 실속 있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이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는 변수에 대하여 의심이 많고 겁이 많다.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와 나의 가족 이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 이런 모든 성격들은 가을에 결실을 얻기 위한 작용처럼 결과를 얻기 위한 성향이다.

태음인은 욕심이 많고 자기의 뜻을 남이 알아차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자기의 감정을 남이 아는 것도 싫어한다. 감추는 것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런 성격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열쇠를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음인이다. 감춘다는 것은 에너지를 수렴하기 위하여 나오는 자연스런 성격이 시키는 것이다. 태음인들은 무엇이든지 아낀다. 밖으로 물건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안으로 에너지를 아껴서 물질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좀처럼 흥분도 하지 않고 몸을 뒤흔 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모험을 즐기기도 보다는 누워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긴다.

태음인은 감각이 매우 둔하여 강한 자극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다. 소양인에게는 하늘이 두 쪽이 나는 자극도 태음인에게는 별것 아니다. 다른 체질의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정신이 없는데도 먹을 것 잘 먹고 잠도 잘 자며 틈나는 대로 오락도 즐긴다. 태음인에게는 별 것 아니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태음인들은 타고난 사업가들이다. 비즈니스에서는 흥정을 빨리 끝내 버리려는 성질 급한 사람이 불리하다. 태음인은 좋아도 크게 좋게 느끼지 않고 싫어도 크게 싫지 않다. 흥정을 오래 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이득을 챙긴다. 본래 속마음을 드러내 놓지 않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경계하지 않는다. 둔해서 손님의 무례한 행동에도 화를 내지 않아 손님들이 좋아한다. 태음인은 미련하다. 세상은 역경의 법칙대로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된다.

시세의 흐름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지는 못해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붙잡고 기다리면 이득이 될 때가 있다. 이런 모든 태음인의 성격과 행동이 결과를 좋게 만들어 태음인은 각계각층에서 성공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질도 붙잡고 있으면 썩게 마련이다. 부를 밖에 쌓아두는 것은 좋은데 에너지를 지방의 형태로 배와 혈관 속에 쌓아두는 것은 나쁘다. 그래서 노폐물로 변해 중풍,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신진대사가 잘 안돼서 생기는 병이 든다. 태음인이 건강해지려면 태양인을 닮아야 한다. 쌓아놓은 물질을 태양인처럼 에너지로 만들어 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급박한 마음을 일으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노폐물을 끼고 있지 말고 잘 배출시켜야 한다. 가끔 화도 내야 하고 놀라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생리 기능이 활발해진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태양인과 소양인의 마음가짐을 닮아야 한다. 체질은 그 특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니 어떤 체질은 좋고 어떤 체질은 나쁜 것이 아니다. 어떤 음식이 만병을 고치고 웃는 것이 만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은 소음인에게 나쁘고 웃는 것은 태음인이나 소음인에게는 좋으나 소양인에게는 나쁘다.

4. 소음인

소음인(二)은 겨울의 성격을 닮았다. 겨울은 에너지를 저장만 하고 전혀 쓰지 않는다. 속에서 에너지가 빠져 나오려고 압력만 높이고 있을 뿐이다. 소음인은 성격이 수줍고 우울하다. 소음의 상징인 물과 같이 부드러우니 성격이 온순해 보이나 음은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 딱혀서 융통성이 없는 것이니 고집이 세다. 아랫사람이 자기 주장 없이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한다고 고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고분고분 따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음인들로서, 사상체질 중에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다. 보통 때는 남의 말을 듣다가 한번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확실하게 맞는 것을 증명해도 틀렸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소음인이다.

양은 변화가 빠르지만 음은 변화가 느린 법이다. 양은 활동성이 강하고 음은 활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느린 것이다. 소음에 해당하는 시기인 겨울이나 밤에는 생각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으면 결단을 못 내린다. 소음인들이 우유부단한 것이 그 때문이다. 소음인들이 고분고분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은 주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장을 저장하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많아서 이해득실을 너무 따져 추진력이 약하다. 성격이 소양인처럼 급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인처럼 한번 그 일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죽자고 매달린다. 그러나 소음인은 움츠러드는 성질이 많아 그 일의 어두운 쪽도 생각나고 밝은 쪽도 생각나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게 되어 추진력이 약해진다. 또 너무

꼼꼼하여 방금 한 일이 완전해질 때까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서 일의 추진력이 느리다.

마음이 한번 상하면 그것이 머무는 시간이 길다. 느리게 변하는 것이 음이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이 오래가는 것이다. 부부 싸움을 한 후에 말을 오랫동안 안 하는 사람이 소음인이다. 한번 화를 내고 욕할 때는 그 사람을 죽일 것 같다가 몇 시간 후에는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은 소양인이다. 그 성질의 차이를 알 것이다.

소음인은 남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좋아한다. 소양인도 마찬가지이다. 소음이나 소양 속에 음과 양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음인과 소양인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참견하는 방식도 음과 양의 다소에 따라 다르다. 소양인은 그 자리에서 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소음인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흉을 본다.

소양인이 적극적이라면 소음인은 소극적이다. 소양인은 항상 일의 좋은 쪽을 먼저 생각하나 소음인은 항상 나쁜 쪽을 먼저 생각한다. 컵에 반쯤 담긴 물을 보고 소양인은 반이나 남았다고 좋아하고 소음인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슬퍼한다는 말이다.

소양인은 생각과 행동이 빠르나 소음인은 느리다. 필자는 소음인인데 소양인 친구와 한 방을 쓴 적이 있다.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가자고 합의를 보면 내가 양말을 신고 있는 동안 그 친구는 차고에 나가 차에 올라타 있었다. 그 친구는 항상 열이 많아 창문을 열려고 했고 나는 추워서 창문을 닫으려 했다. 그 친구는 일을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고 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식당에 가면 그는 주로 차가운 샐러드를 주문했고 나는 주로 따뜻한 스프를 주문했다. 토론을 할 때 그는 빠른 속도로 많은 말을 했으며 나는 느리고 차분한 어조로 말을 했다. 토론하는 동안 그는 쉽게 흥분했다. 그는 나에게 비밀이 없었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수입은 나보다 많았으나 돈은 나보다 많이 썼고 나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사주기를 좋아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었다. 식사하는 속도도 아주 빨랐고 방에서는 앉아 있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많았다.

한번은 차의 앞 범퍼를 찌그러뜨려 온 적이 있었다. 1차선에서 앞의 차가 느리게 가서 경적을 울렸더니 그 차가 더욱 느리게 가서 화가 나 받아버렸다고 했다. 그의 소양의 성격을 한마디로 불에 비유할 수 있는데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지독한 태음인 여자와 결혼해서 그의 성격을 고쳐가며 잘살고 있다. 태음인 부인이 그의 단점을 잘 보완해 주고 있다. 즉, 에너지를 수렴해서 물질로 저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소양인 여자와 결혼했으면 그의 불 같은 성격이 활활 잘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